

'나솔사계' 4:1 데이트 후폭풍...13기 상철 직진 고백

등록 2026.04.02 18:23:00



[서울=뉴시스]'나는 SOLO,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'(사진=SBS Plus-ENA 제공) 2026.04.02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'나솔사계'의 남녀들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사랑 쟁취에 나선다.

2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SBS Plus-ENA의 '나는 SOLO,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'(나솔사계)에서는 '솔로민박 in 포천'에서의 경력직 솔로남녀 10인의 2일 차 이야기가 공개된다.

첫 데이트 이후 이들은 더욱 치열하게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 변화를 예고한다.

특히 0표를 받았던 13기 상철의 반전 행보가 눈길을 끈다.

13기 상철은 20기 영식과의 4 대 1 데이트를 마친 24기 순자에게 "저랑 잠깐 나가자"며 대화를 신청하고, "얘기해 보고 싶은 분이었다"고 솔직하게 고백한다.

이어 24기 순자의 채식 식습관을 언급하며 "연애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"고 묻고는 "오픈 마인드로 (24기 순자님을) 알아 보려고 한다"고 의지를 보인다.

한편 17기 순자는 이른 아침 주방에서 해장라면을 끓이며 적극적으로 변신한다.

이를 맛본 20기 영식은 "진짜 잘 끓였다"고 칭찬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